

노래로...봉사로...위로와 나눔의 한가위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정을 나누고 그동안 소원했던 이들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명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 땅을 떠돌다 고국으로 온 고려인들, 시설에서 명절을 맞는 어르신들, 진도 앞바다에 잠든 자식(가족)을 기다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가족에게 출선물을 고를 때 고려인에게 건넨 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고향집에 갈 차표를 예매할 때 팽목항으로 가는 승합차에 몸을 싣는 청춘이 있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설 노인들을 찾아가 공연을 여는 '실버악단'이 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보다 이웃에게 먼저 정(情)을 전하는 사람들의 애기를 전한다.

명절이면 기부천사가 되는 공판장 사람들 = 광주 각화동 원예농협 공판장은 명절 대목 장사가 파장할 쥘이면 특별한 방송이 울려 퍼진다. "상인 여러분, 올 추석에도 33년 중매인이 고려인 마을로 햇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33년 앞으로..."

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1t 트럭 2대 분량의 햇과일이 쌓인다. 33년 중매인 류재석(61)씨가 바쁠때면 다른 중매인이 배달을 가거나 고려인 마을에서 직접 과일을 가지러 온다. 벌써 5년째 계속되는 풍경이라 상인들도 고려인들도 낯설지 않다.

류씨는 십 수년 전 화순에서 교편을 잡았던 이천영(사)고려인 마을 이사장을 알게 됐다. 당시 그들 관계는 학부모와 교사였다. 이 이사장이 교편을 놓고 이주 노동자와 고려인의 광주 정착 활동을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류씨는 그들의 후원자가 됐다. 류씨는 "아까면 뭐하나 썩기 밖에 더 하나, 상태 좋을 때 나눠야지라는 생각으로 (기부) 시작하게 5년 전부터는 원협 공판장 식구들 모두가 함께 하게 됐다"면서 "있는 과일을 조금 나누는 것 뿐인데 주목받는 것 같아 죄진 것 마냥 쑥스럽다.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착한 사람들 정말 많다"고 말했다.

노인을 위로하는 할아버지 공연단 = 음악과 춤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특급' 노인들도 있다. 추석 연휴 전후를 중심으로 요양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청

추석 명절 힘겨운 이웃과 情 나누는 사람들

광주 각화동 원예농협 상인들 광산구 고려인 마을 돕기 할아버지 공연단 '청춘 악단' 요양시설 찾아가며 봉사 팽목항 지키는 젊은이들 세월호 실종자 가족 눈물 닦아줘



추석 연휴를 위로와 나눔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2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내 원예농협 공판장에서 중매인들이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본촌동 이삭 요양원을 찾아가 '청춘 악단' 단원들이 치매 노인 등을 위해 준비한 공연에 앞서 한자리에 모였다.

춘 악단' 애기다.

지난 3일 오후 북구 본촌동 이삭 요양원에 꾸러진 작은 무대 위로 카랑카랑 목소리의 최일방(81) 할아버지가 올라섰다. 뒤 이어 한껏 멋을 낸 공연단이 올라와 소개

를 마치자 김영복(72) 할아버지의 아코디언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진다. 공연이 시작된 것이다.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만 바라보던 요양원 어르신도 '내 나이가 어때', '추억의 소

악곡', '무너진 사랑담' 등 트롯 가요가 이 어지자 어깨가 들썩거렸다. 웃음 소리로 들렸다. 어르신들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청춘 봉사단'은 이날 이삭요양원 공연에 이어 4일에는 장성 영락요양원을 찾았다.

시설로 보내진 어르신들 만큼이나 공연을 펼친 '청춘 악단'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마다 아픔이 있다. 단장인 최 할아버지는 말을 못하는 50대 아들을 여태 품안에 거두고 있는가 하면 단원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대에 오를 때 마음은 모든 걸 잊고 '내 오늘 모든 걸 보여주고 가자', '이 양반들 한 번 내가 즐겁게 해주고 가자'라는 생각만 한다"면서 "우리도 늙고 지친 노인들이지만 저 친구들은 명절에도 시설에만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팽목항으로 가는 젊은이들 = 추석에도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엔 10명의 실종자가 잠들어 있다. 눈물이 말라붙은 실종자 가족들 곁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이 있다.

지난 31일 오후 7시께 정성욱(39·북구 신안동)씨와 강성권(34·광산구 침단)씨, 박인용(37·서울)씨, 구민아(여·33·서울 신림동)씨 등 4명은 팽목항으로 가는 승합차에 몸을 싣었다. 이들은 광주YMCA 회원들과 진도에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곁으로 가 구호품을 지키고 화장실 청소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회사원 정씨는 휴가를 냈고 올 가을 공무원 시험을 앞둔 강씨와 박씨, 구씨는 수험 준비도 잠시 미뤄두고 '팽목항 등대지기'를 지켰다.

정씨는 7월초 출장길에 안산 세월호 분향소에 들렀다가 300개가 넘는 영정을 마주한 뒤 올 여름에만 7차례나 팽목항에 내려가 소리없이 실종자 곁을 지켜왔다. 올 여름 팽목항을 한 차례 찾았던 강씨는 스타디움 옆 바닷가와 구수를 이끌고 이날 다시 진도에 가게 됐다. 팽목항에서 무박 2일의 봉사를 마친 이들은 "실종자들이 잊혀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우리라도 계속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사진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이 온다" 즐거운 동심



추석이다. '민족대이동'을 목전에 둔 4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나온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만남의 기쁨은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보듬어 주며, 나눠주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명절이야말로 피곤한 일상의 '땃가' 아니겠는가.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 특집 28면 발행 <8·9·10일자 신문 읽는다>

- | | | | |
|------------------|-------|--------------|-------------|
| 장애인가족 '증도 힐링 캠프' | ▶ 2면 | 문화전당 개관 1년 앞 | ▶ 14면 |
| 한가위 '父子 술직 토크' | ▶ 3면 | 광주 문화지도가 바뀐다 | ▶ 15면 |
| 힐링 여행 '템플 스테이' | ▶ 11면 | 추석 연휴 생활정보 | ▶ 16면 |
| 한가위 문화 나들이 | ▶ 12면 | 기성용의 추석 메시지 | ▶ 17면 |
| 한가위 극장가 | ▶ 13면 | TV프로 하이타이트 | ▶ 23·24·25면 |

2015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연휴 날씨

6일(토)	7일(일)	8일(월)	9일(화)	10일(수)
맑음 17/32℃	맑음 20/30℃	구름 많음 20/29℃	맑음 19/28℃	구름 많음 20/27℃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광주일보 임직원 일동

Industrial COMPLEX
순천 해룡산업단지

순천시, 순천역, 광양시, 광양항, 여수공항,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POSCO 광양제철소, 요도, 광양만, 호남고속도로, 진주-광양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목포광양고속도로,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PREMIUM 5

- 신도시 건설로 우수한 정주여건
- 순천C, 동순천C 등 4개 고속도로 인접
- 여수, 김해 공항 등 차량 1시간대 접근
- 세계적인 광양항 편리하게 이용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세계혜택

※상기 지도는 소버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였으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시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산100-3 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면적 1,260,656㎡

분양사무실 061)721-3463

대우건설, 덕후건설, Gr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

대우건설

한 차원 높은 대우 순천해룡산업단지

신뢰의 대우건설이 직접 사공하는 순천 해룡산업단지

분양사무실 061)721-3463

대우건설, 덕후건설, Gr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시